



## EAI 여론브리핑 제14호 (2007. 8. 19)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2007)

### 2007 대선패널조사 1차 조사 분석결과



- 기 획 :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 후 원 : SBS·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 본 : 3,504명
-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쿼터 할당 후 무작위 가구 추출하여 이후 6차 패널조사에 패널로 참여할 응답자 선정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1.7%
- 조사기간 : 2007. 4. 25-4. 28
- 가 중 치 : 지역(권)·성별·세대·학력별 가중치 부여

### [대선패널조사 연구팀 소개]





## 왜 패널조사인가? “이렇게 조사했다.”

아전인수식 여론해석 경계, 민심의 실체를 보여줘

김병국(EAI원장, 고려대)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치인 당사자나 이를 단순히 지켜보는 관중의 입장이라면 당장은 지지율 변화가 관심사일 것이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들은 대선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예외없이 특정시점마다 별도의 응답자를 모집하여 조사하는 일회성 조사(ad hoc)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회성 조사는 시기별로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하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선호를 바꾸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동기를 파악하는 일이다. 일회성 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먼저 진행한 조사와 나중에 진행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왜 변화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가령 유권자들이 최선이 아닌 차악의 의미로 특정후보를 지지하여 당선되었다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민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 이러한 복잡한 민심은 잊은 채 자신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인 양 독선의 정치를 펼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후보자 자신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에게도 다 같이 불행한 일이다.

중앙일보 · SBS · 동아시아연구원(EAI) ·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폐단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17대 대선에서 패널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방법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사람과 의견을 바꾼 사람,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부동층으로 남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패널조사 방식은 후보에 대한 평가나 투표선호를 바꾼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직접 물어볼 수 있어 민심이 변화하는 이유와 동기를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아전인수식 독선정치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각 기관이 협력하여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국선거제도 사상 처음 진행하는 패널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이다.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패널조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성 · 연령 ·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3,500여 명의 대규모 패널을 대상으로 대선이 끝나는 12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총 6차례 반복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화인터뷰로 실시한 이번조사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1.7\%$ 이다. 오늘 발표하는 조사결과는 4월 26일~29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결과다.



후보선정 이후 유권자 지지성향 변화 예측1.

## 범여권의 반한나라당 연합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범여권 대연합 현실화 쉽지 않아, 한나라당 경선 이후 내홍 가능성 높아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한나라당 유력후보들의 지지율의 우세 속에서도 누구도 대선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의 반한나라당 연합의 성사 가능성과 한나라당 내분이라는 변수가 아직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1차 패널여론조사 결과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 반한나라당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 반한나라당 지지자 및 무당파층의 다수는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을 더 싫어해

우선 반한나라당 연합의 가능성부터 살펴보자. 유권자들에게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을 물어본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42.2%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선호층의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싫어하는 정당으로 꼽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자 56.8%를 비롯하여 민주당 지지자 45.1%, 민주노동당 지지자 57.9%, 국민중심당 지지자 40%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을 꼽고 있다. 이는 범여권이 반한나라당 연합을 결성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표1]

### ■ 반한나라당 연합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

그러나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 지지자나 무당파층에서 한나라당 비토정서가 있다고 해서 반한나라당 연합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움이 많다.

첫째, 반한나라당 연합을 추진할 중심세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반한나라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들의 지지율을 보면 열린우리당 11.8% 민주당 5.1%이고 통합신당모임 등은 미미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선호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파 층에서도 절반 가까이(45.3%)는 싫어하는 정당도 없다고 밝혀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보 중심의 반한나라연합 시나리오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 소속 대선 후보들의 강세에 비해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도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 후보를 구심점으로 반한나라 연합이 결성될 여지가 적다.

셋째, 현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중심 연합의 중심으로 거론되는 손학규 후보,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조차 이들이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지지할 후보로 한나라당 후보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범여권 후보 중심의 연합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나타낸다. 현재 손학



규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손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32.5%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정동영 후보로 지지를 옮기겠다는 사람이 13.5%,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 11% 순이었다. 정동영 후보 지지자의 경우도 정후보 불출마시 25.6%가 이명박 후보로, 18.3%는 박근혜 후보로 지지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퇴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운찬 후보 지지를 밝힌 사람(1.3%, 44명)중 22.2%는 손학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17.8%), 정동영 후보(13.3%) 순으로 지지를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범여권 후보의 지지자들의 경우 전체 범여권 후보군 중에서 후보를 정하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여론만 놓고 보면 범여권이 결집하더라도 후보 선정과정에서 다수는 한나라당 후보 지지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여권 집결의 응집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연합에 희망을 걸고 있는 현 여권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표1: 대선패널 1차] 가장 선호정당과 가장 혐오하는 정당 비교

혐오 선호	한나라당	열린우리	민주당	민주노동	국민중심	통합신당	싫어하는 정당 없음	총계
한나라당		48.6	9.1	12.2	2.1	7.2	17.5	42.2
열린우리	56.8		9.0	8.1	3.9	7.9	12.9	13.1
민주당	45.1	20.2		13.3	2.1	3.4	12.4	6.7
민주노동	57.9	24.6	5.0		2.7	5.3	4.5	9.6
국민중심	40	30.9	1.8	14.5		1.8	5.5	1.6
통합신당	69.5	13.4	2.4	3.7			11.0	2.3
선호정당 없음	24.9	17.7	1.7	4.8	0.6	3.0	45.3	23.9
총합	24.3	29.3	6.1	8.5	1.9	5.6	21.8	

[표2: 대선패널 1차] 현 지지후보 불출마시 지지할 후보

2순위 현지지	강금실	노회찬	박근혜	손학규	이명박	정동영	정운찬	선택할 후보없다	모름 무응답
이명박	44.2	3.0	1.4	46.6	14.6	5.9	2.6	13.9	3.2
박근혜	22.4	3.2	1.4	7.4	58.1	3.7	1.2	12.7	5.8
손학규	5.7	5.5	2.0	11.0	32.5	13.5	3.0	11.5	4.5
정동영	3.4	5.8	0.8	18.3	5.0	25.8	5.8	9.2	7.5
정운찬	1.3	2.2	4.4	6.7	22.2	17.8	13.3	6.7	



범여권의 재집결 가능성 분석2.

## 범여권 이탈과 재결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권혁용(고려대)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지지자 중 65%가 범여권 후보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 지지 77%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

### ■ 범여권 지지층 이탈규모 예상

범여권 지지층의 정치적 선택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면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1차 패널조사의 결과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핵심지지층일수록 지지전환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여권에게 나쁜 소식은, 이러한 핵심지지층조차도 약 65%가 지지이탈 의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택과 현 시점의 정당지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사람 중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77%에 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그 비율이 3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19.1%는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전환했고, 23.8%는 부동층(지지정당 없음)으로 옮겨갔다. 통합신당(7.0%), 민주당(5.1%), 국민중심당(0.9%)을 범여권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범여권 고정지지층은 43.4%이다.

현재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 35%(범여권 고정지지층)만이 범여권 대선후보 중 한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65%(범여권 이탈층)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려 하거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 범여권 고정지지와 이탈 비율

2007년 2006년 지방선거	현재 非열린우리 지지/부동층	현재 열린우리당 지지	현재 범여권 지지	2007 대선 非범여권 후보 지지/부동층	2007 대선 범여권 후보 지지
非열린우리당 후보지지	96.3%	3.7%		89.4%	10.6%
열린우리당 후보지지	69.6%	<b>30.4%</b>	<b>43.4%</b> ( <u>열+민주+통합 신당+국민중심 당</u> )	65.5%	<b>34.5%</b>



■ 범여권 이탈요인과 재결집 요인 점검

- 이탈요인 : 수도권 · 영남 · 충청권 이탈/ 이념적 중도 · 보수화/ 경제이슈 민감/ 노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 결집요인 : 진보 · 호남층 · 30 · 40대 남성 핵심지지 기반 매개  
노대통령 국정지지율 회복/ 경제개선

범여권 이탈층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요인들이 이탈과 관련 있는가.

범여권 고정지지층과 비교해 볼 때 범여권 이탈층은 여성이 많으며 수도권, 영남, 충청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고정지지층보다 중도에 가깝다. 정책이슈나 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여권 이탈층이 고정지지층에 비해 경제성장 · 경제양극화 같은 경제이슈에 민감하며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5년 전에 비해 현재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할수록 범여권 지지로부터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 진보, 호남지역, 30대와 40대 연령층, 남성은 범여권 이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범여권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이탈가능성이 낮은) 집단의 선택이 범여권 지지세력 결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단의 기본적(baseline)인 지지이탈 가능성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결국

범여권세력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탈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들의 지지를 담보(결집)하는데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탈가능성이 더 높은 집단들의 지지이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범여권이 범여권 지지기반의 재결집을 이루는 전략은 민주적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집권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혹은 보상으로서의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출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대하고, 가정경제 또는 국가경제가 호전되었거나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 범여권 지지층의 재결집이 가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한나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섰던 범여권 이탈층의 ‘재전환’(지지복귀)의 가능성도 발견될 것이다.

◎ 주요 변수에 따른 집단별 범여권 이탈층 크기 비교

-경제적 양극화 완화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이탈층 2.0%p 증가
-경제성장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이탈층 8.7%p 증가
-수도권 (고향)	비수도권 → 수도권	이탈층 6.4%p 증가
-영남 (고향)	비영남→영남	이탈층 5.2%p 증가
<b>-호남 (고향)</b>	<b>비호남→호남</b>	<b>이탈층 15.7%p 감소</b>
-충청 (고향)	비충청→충청	이탈층 2.8%p 증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탈층 12.3%p 증가



-가정경제	향상/현상유지 → 악화	이탈층 8.4%p 증가
-성별	남성 → 여성	이탈층 5.8%p 증가
-주관적 이념	진보 → 중도	이탈층 11.2%p 증가
-주관적 이념	중도 → 보수	이탈층 7.5%p 증가
-연령	30·40대 → 20대·60살 이상	이탈층 10.0%p 증가

\*\* 주: 이 표는 두 집단간 (예컨대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범여권 이탈층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변수들의 이탈 확률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이 표에 근거하여, 연령효과가 경제성장 이슈효과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 한나라당 경선이후 이, 박 지지층들의 지지변화 예측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현재 지지후보 불출마시 지지표 이동 분석

이후보 불출마시 이후보 지지자 → 47% 박근혜 후보 지지, 14.6% 손학규 후보 지지

박후보 불출마시 박후보 지지자 → 58.1% 이명박 후보 지지, 7.4% 손학규 후보 지지

현재까지 나타난 2007년 대선정국의 가장 큰 특징은 범여권의 신당창당이 지연되고 유력한 후보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여야후보간의 경쟁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두 한나라당 후보사이의 치열한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선을 통해서 두 후보 가운데서 한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경선이후 두 후보 지지층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대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후보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선에서 한 후보가 당의 후보로 선출될 경우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과연 선출된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나라당 경선이후 두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의향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 지지자들에게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지지자의 47%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손학규 후보 지지로 돌아서겠다는 사람이 14.6%였다.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박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58.1%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로 돌아선 7.4%를 포함하여 범여권 후보 진영으로 이탈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당 후보로 선출되면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후보 지지층의 경우 범여권의 지지층과 겹쳐 범여권 재집결 여부에 따라 거품이 빠질 여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선거는 상대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가지고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두 후보의 기존 지지층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한 후보가 최종 결정될 경우 기존 지지율에 상대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유입되는 표를 더해보면 현재 범여권 진영의 모든 표가 하나의 후보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내 두 후보사이의 지나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당이 쪼개지는 파국적 상황을 막고 민주적인 당내 경선을 치루는 것이 한나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인 셈이다.





[표2: 대선패널 1차] 현 지지후보 불출마시 지지할 후보

현지지 \ 2순위	강금실	노회찬	박근혜	손학규	이명박	정동영	정운찬	선택할 후보없다	모름 무응답
이명박	44.2	3.0	1.4	46.6	14.6	5.9	2.6	13.9	3.2
박근혜	22.4	3.2	1.4	7.4	58.1	3.7	1.2	12.7	5.8
손학규	5.7	5.5	2.0	11.0	32.5	13.5	3.0	11.5	4.5
정동영	3.4	5.8	0.8	18.3	5.0	25.8	5.8	9.2	7.5
정운찬	1.3	2.2	4.4	6.7	22.2	17.8	13.3	6.7	



17대 대선 균열 점검1.

## 대한민국 여성, 정치적 독립선언

여성, 성(性)인 지적 정치의식 보유하기 시작

김민전(경희대 교수)

여성 유권자의 박 후보 지지율이 남성의 박후보 지지율보다 높아  
젊은 세대에서는 남녀 간 박근혜 후보 지지율 차이 커: 성인지적 정치의식 조짐  
5060 세대에서는 여성과 남성간 박 후보 지지율 차이 없어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 ‘여성은 남편과 동일하게 투표한다.’ 여성의 투표와 관련해 널리 퍼진 속설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앞둔 여심의 흐름은 기존의 속설을 보기 좋게 폐기처분하고 있다. 대선주자 빅2인 이명박 전시장과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남성은 이 전시장을 여성은 박 전대표를 더 선호하고 있다. 남성 응답자의 45.2%, 여성 응답자의 43.6%가 이 전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응답자의 19.2%, 여성 응답자의 25.2%가 박 전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지지율의 차이는 20, 30, 40대에서 놀라울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대 남성의 17.1%가 박 전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20대 여성의 24.4%가 지지하고 있다. 30, 40대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 여성의 지지율이 남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30대 여성 응답자의 23.3%, 40대 여성의 23.3%가 박 전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30, 40대 남성 응답자의 지지율은 12.6%와 15.4%에 그친다. 그러나 50대 이후에서는 상황이 역전된다. 50대 여성의 23.8%, 60대 여성의 31.3%가 박 전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50대 남성의 25.0%, 60대 남성의 33.1%가 박 전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전시장의 지지율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20대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각각 51.9%와 40.9%가 이 전시장을 지지해 남녀 응답자의 지지율의 차이가 11%포인트나 된다.(그림1,2)

20, 30, 40대에 있어서의 성별 지지율의 놀라운 차이는 본격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이 세대의 여성들이 성(性)인 지적 정치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여성을 더 잘 대표한다는, 여성의 정치적 역할모델이 필요하다는 성인지적 정치의식에 눈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대표는 물론, 강금실 전법무장관, 한명숙 전총리 등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정치인을 구색 맞추기쯤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인데, 그 근저에는 젊은 여성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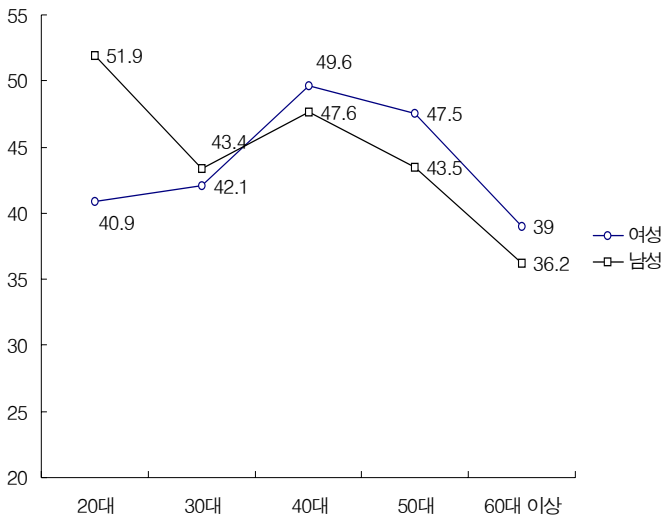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여성은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도 남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할 때 경쟁과 효율성보다는 조화와 약자의 보호, 질서의 유지보다는 관용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편하더라도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 라는 의견에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그림3,4) 이러한 성별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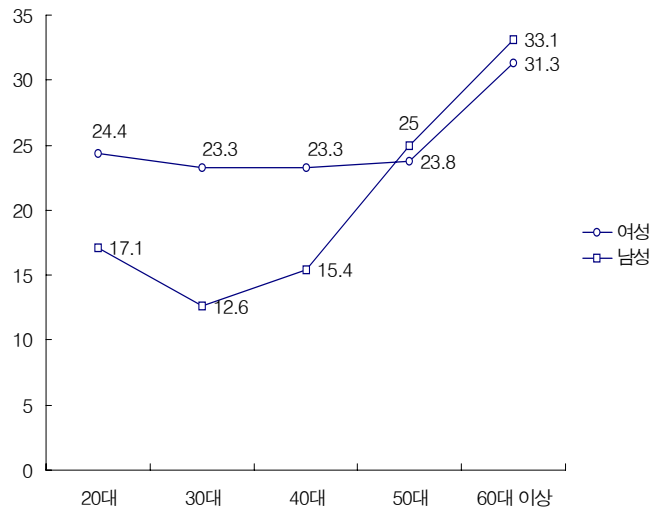
는 모두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20,30,40대에 있어서 성별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여성유권자들도 서구의 여성유권자들처럼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균열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수여성의 정책적 입장과 여성 후보의 정책적 입장이 상충할 경우 고민에 찬 선택도 해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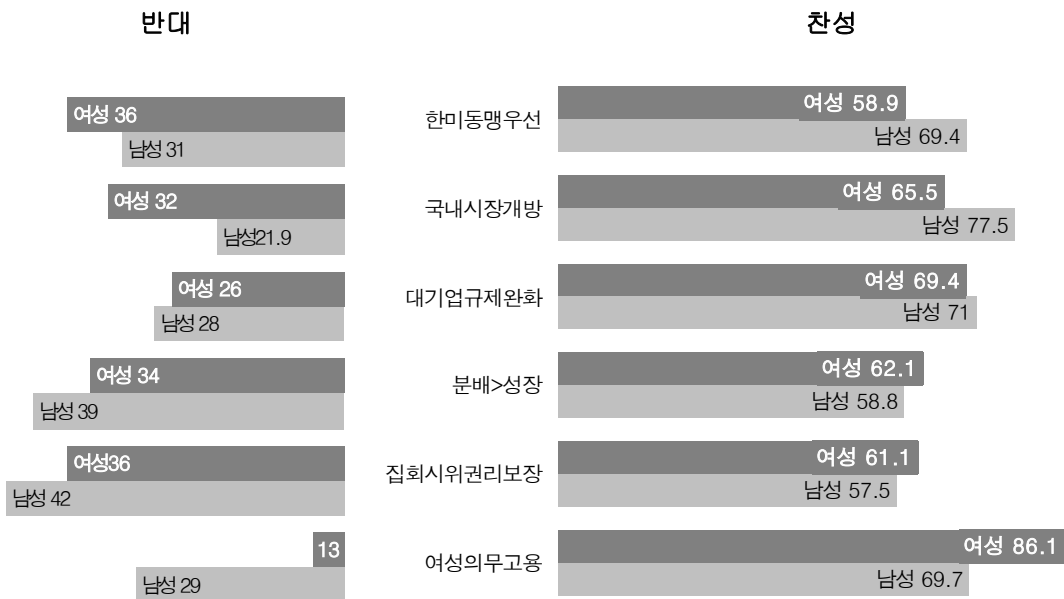
[그림1] 이명박 후보 세대\*성별 지지



[그림2] 박근혜 후보 세대\*성별 지지



[그림1] 주요이슈에 대한 남성 여성별 찬반 여론





17대 대선 균열 점검2.

## 세대와 연령

40대가 된 386세대, '386=반한나라당' 등식 깨져

임성학(서울시립대)

40대가 된 386세대, '386=반한나라당' 등식 깨져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층 많아, 진보층도 이·박 후보 지지 높아 연령효과 크지 않을 듯

### 세대와 연령으로 본 여권 지지층의 재결집 가능성 검토

한나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박후보와 이후보의 갈등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의 대선 후보나 정당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범여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범여권이 구상하고 있듯이 과거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고 진보적이고 반한나라당 성향의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면 이번 대선도 과거 대선과 같이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다. 먼저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범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살펴보고, 젊은 세대의 이념과 투표 성향을 살펴보자.<sup>1)</sup>

### 전통적 지지층인 386세대: 점점 보수화

386세대는 학창시절에는 민주화를, 사회에 진출해서는 세계화의 파고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를 의미하며 다른 세대보다 진보적 성향을 갖는다. 386세대는 진보정권의 등장과 한국 사회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짐과 동시에 준비 안 된 이상적 개혁세대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386세대는 나이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60~69년생)을 의미한다. 2007년 현재 386세대는 나이 37세부터 46세까지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sup>2)</sup>

2002년 이후부터 386세대의 투표성향을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국민보다는 진보적 세력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린 우리당 혹은 민노당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2002년 대선 이후 점점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386세대의 거의 반(47.5%)이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386세대는 일반 국민과 거의 모든 질문항목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에서도 44.9%가 이명박 후보, 20.1%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일반국민보다 낮은 반면에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일반국민 5.7보다 높은 8.6%이다. 이런 현상은 386세대가 가장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변모하여 과거 민주적, 개혁적 성향이 약해진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세대 효과는 역사적 사건을 같이 겪었거나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여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연령효과는 나이에 따라 이념,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함. 물론 386세대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데이터에서 나이를 만 37세에서 46세의 샘플만 추출해 분석함. 총 751명임.



즉 점점 공통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대효과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념성향이나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연령효과가 더 강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범여권의 지지기반이었던 386세대가 보수화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범여권의 전통적 지지 세력의 재결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02년, 2004년, 2006년 선거당시 대선 지지 비교 : 386과 전체응답자 비교

2002년 대선			2004 총선			2006년 지방선거(광역단체장)			2007년 대선*		
	전체	386		전체	386		전체	386		전체	386
이회창	34.5	30.0	열린우리당	30.6	35.8	열린우리당	23.7	24.6	이명박	44.4	44.9
노무현	50.6	60.3	한나라당	38.7	37.1	한나라당	44.5	47.5	박근혜	22.2	20.1
이한동	0.2	0.3	민주당	5.6	4.3	민주당	5.0	4.5	손학규	5.7	8.6
권영길	2.1	3.7	민주노동당	4.5	6.3	민주노동당	3.4	4.9	정동영	3.4	2.6
다른 후보	1.0	.9	국민중심당	1.1	1.4	국민중심당	1.0	0.9	강금실	1.6	1.7
투표하지 않음	5.4	4.1	다른 정당	0.4	0.6	다른 정당	0.3	0.6	유시민	1.6	0.6
			투표하지 않음	9.7	6.7	투표하지 않음	14.9	11.0	정운찬	1.3	1.5

(무소속, 모름/무응답 제외)

\* 후보의 지지율이 1% 초과한 경우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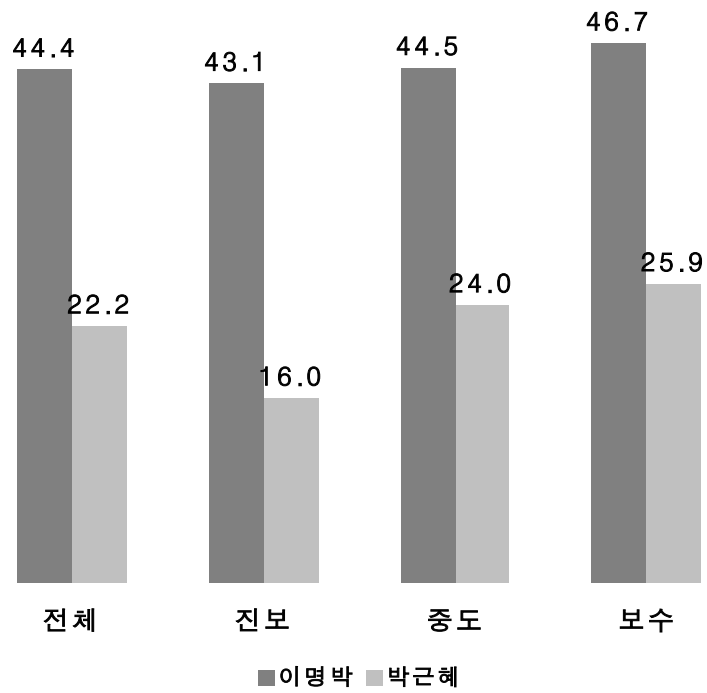
\*\* 후보자와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이번 조사의 득표율이 다른 이유는

### 진보적 젊은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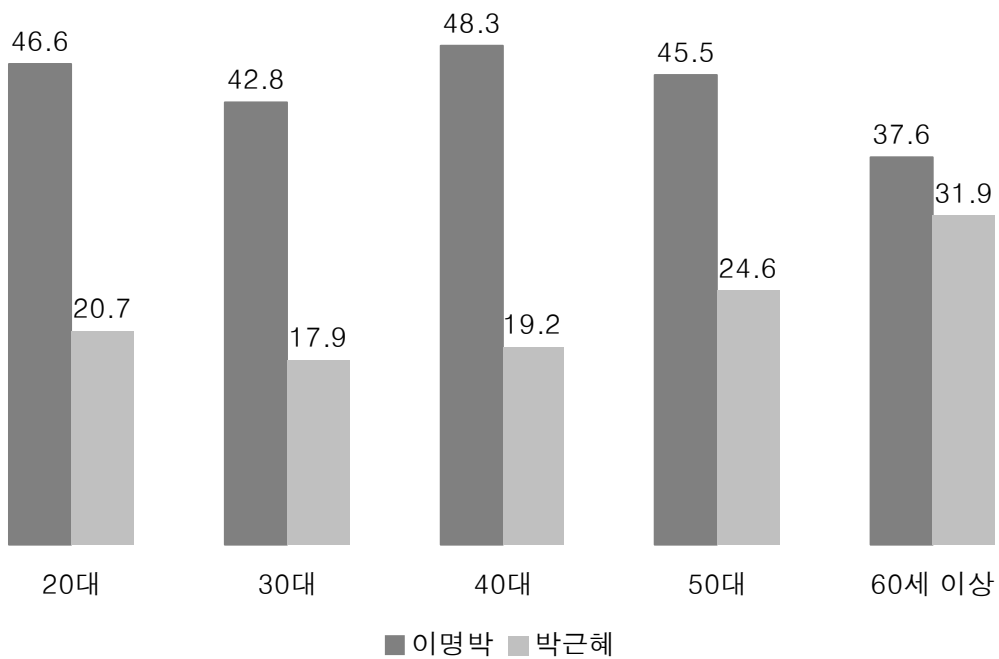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는 진보성향을, 40-50대의 기성세대는 보수 성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을 연령효과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 연령에 따라 지지패턴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유지되고 왔다. 그동안 낮은 투표율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령효과는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젊은 세대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크게 증가하여 이번 대선에서는 연령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범여권에서 이런 연령효과를 통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진보라고 대답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가장 높은 34%, 30대 32%, 40대 27.5%, 50대 22.5%, 60대 이상 20.0%로 연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30대도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그림2]



[그림 1] 이념성향별 이명박 박근혜 지지도



[그림 2] 연령별 이명박-박근혜 지지도





17대 대선 균열 점검3.

## 한나라당 빅2간의 경쟁과 새로운 지역균열: 남북균열의 부상

한나라당 빅 2 후보 대선지지 지형도 바뀌

김장수(고려대)

이명박 前시장과 박근혜 前대표 간에 벌어지는 한나라당내 대선후보 경쟁이 치열하다. 반노무현 정서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반한나라당 정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4·25 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 빅2 후보 간의 당내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조사는 한나라당 빅2 간의 경쟁이 경선률과 관련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이한 지지세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보간 지지세력의 차이는 기존의 동서균열을 대체하는 남북균열의 대두와 연결되어 있다. 즉 이번 대선에서 東西간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선호후보 차이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 평균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세배에 달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평균에 근접할 뿐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정반대의 현상이 박근혜 후보 지지분포에서도 나타난다.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면서 이명박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든다. 요약하면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역기반인 영남과 충청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이명박 후보의 고공비행은 기존에는 여야간 박빙으로 분류되던 수도권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에 기인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균열이었던 동서균열은 과거 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남의 경우 전국적인 선호와는 달리 범여권 후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3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빅2의 지지율 합계가 60%를 넘는다는 조사결과는 충청이 범여권 지지기반인 서부권 벨트에 편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현실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후보의 고공비행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연령 및 직종에서는 3-40대 화이트칼라층 등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유권자층의 압도적인 지지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정반대의 예측을 가능케 한다. 첫째, 한나라당의 구태가 개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강력한 주자가 부상한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현재의 지지세가 현저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편에서는 현재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표1] 지역별 이명박 · 박근혜 후보 지지율 비교

지역	이명박	박근혜	여타후보	선택할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이-박 차이
전국평균	44.4	22.2	18.7	9.4	5.3	22.2
서울	53.3	17.5	18.7	6.1	4.4	35.8
인천·경기	48.1	20.2	18.3	8.0	5.4	27.9
대전·충청	37.5	28.2	18.4	10.3	5.6	9.3
광주·전라	29.5	8.1	38.6	14.2	9.6	21.4
대구·경북	45.3	32.6	9.8	7.5	4.8	12.7
부산·울산·경남	40.7	28.3	14.9	11.1	5.0	12.0
제주·강원	41.4	31.4	12.6	9.6	5.0	8.5

[그림1] 지역별 이명박 · 박근혜 후보 지지율 차이

